

옛것을 소통시키는 지역문화 지킴이 우리 소리 연구회 <숫대>



또한 해의 '판'이 벌어졌다. 나와 이웃이 사는 이 지역에 풍요와 안녕이 이어지고 새로운 해를 기원하는 판이 풍물패의 흥겨운 소리를 타고 마을 곳곳에 울려 퍼진다.

성남 시민들에게는 이미 널리 알려진 우리 소리 연구회 <숫대>는 새해 첫날이 되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남한산성을 한바탕 풍물 소리로 채운다.

"옛날 광주대단지 아세요? 이 땅이 예전의 광주지역입니다. 하남, 성남 등 남한산성 주변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한 곳이에요. 서울시에서 판자촌이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이곳으로 내몰았죠. 그때 꽤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와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넓을 광' 자의 옛 광주지역에 속해 있던 곳이 지금의 성남입니다." 현재의 성남은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당시 광주읍에서 외떨어져 그저 집들이 듣성듣성한 시골 땅이었다.

선배들과 <숫대> 초창기부터 함께 했다는 김진형 씨는 지금의 성남은 서울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척박하고 속내 드러나지 않는 사연을 간직한 곳이라며 지역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한다.

귀를 열고 '소리'를 만들다

지난 96년 성남에서 YMCA 풍물패를 운영하

던 전순필 씨와 분당에서 풍물패를 운영하던 팀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숫대>는 전통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이들이 모여 만든 집단이다.

<숫대>의 단원들은 한 가지 악기만을 연주하지 않는다. 장구는 물론 징, 북, 해금과 아쟁도 다룰 뿐더러 춤사위도 한 자락씩을 한다. 여섯 명이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역할을 주더라도 금방 자신의 몫을 소화해 내는 것이다. 그야말로 멀티 엔터테이너인 셈이다. 현



지난해 성남 시민회관에서 열린 정기공연

재 공연을 하는 정단원 여섯 명 중 초기 단원들은 80년대 대학에서 풍물을 했고 나중에 합류한 단원들은 대학에서 전통음악을 전공한 이들도 있다. 구성원을 보더라도 전통음악에 대한 이론과 경험을 두루 갖춘 단체란 걸 알 수 있다. 얼마 전 한국전통타악연구소 <관>이 기획한 대공연 '평화의 땅, 자주의 나라'에 이들이 참여한 것도 이같은 바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숫대>가 사람들을 모으는 힘은 '소리'다. 판을 벌린 소리, 그들만이 만들어 내는 신명나는 판의 소리가 사람들의 귀와 눈을 모아낸다. 성남시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탄천, 이곳에 놀러 온 시민들을 끌어 낼 수 있는 힘과 남한산성을 찾은 이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할 수 있는 힘도 이들이 만들어 내는 소리에 있다. 이렇듯 형식적인 무대를 마련하지 않고 스스로의 자리를 만들어 언제나 시민들을 찾아 만나는 '찾아가는 작

은 음악회'는 <숫대>를 알리는 성남의 중요한 행사가 되었다. 부설로 만든 성남국악학교에는 초등학교 음악교사들도 찾아와 배운다. 민요와 판소리, 사물, 풍물 등 한국 전통음악에 대해 초보자부터 교육을 받게 만든 국악학교는 일 년 단위로 금년이 벌써 4회 째, 그동안 <숫대>를 거쳐 간 수준급의 이들도 있다 한다. 각 단체의 요청으로 현장에서 강습이 이뤄지기도 하는데 <숫대>에 오시던 집배원 한 분이 결국은 자신의 우체국 동료들과 함께 풍물을 배우는 것을 보고, 우리가 락 사랑이 늘어나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우리 것'을 우리가

"요즘은 중·고등학교 풍물 동아리에서도 많은 요청을 하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요즘 아이들은 랩 같은 서양음악에 익숙해져서 풍물이나 사물놀이 하면 고



새해 첫날이 되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남한산성을 한바탕 풍물 소리로 채운다.

리타분하게 여길 것 같은데 직접 학교에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꼭 그렇지도 않더라구요. 우리 음악에 대해 마니아 수준의 아이들도 있어요. 정기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저희 작업실에 와서 조금이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데, 아무리 우리 것이 좋다고 하지만 강제로 아이들에게 교육시켜서 무작정 좋아하게 만드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것'에 대해 억지로 강요해서 안 된다며 막무가내로 가르치려 들면 오히려 자율성과 다양성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김진형 씨의 걱정 섞인 말이다.

"저희 작품들은 우선 대중들이 좋아해야 하고 재미도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음악, 아니 한국 음악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우리 것이 없으면 외국 문화가 금방 우리 정서를 침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문제겠지요. 그러려면 우선 전문적으로 내용이 깊어야 하고... 결국 우리 옛 것을 공연자가 얼마만큼 새롭게 해서 관객들과 소통하느냐 인 것 같습니다" 그는 공연자와 관객의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국인도 저희 작업

실에서 사물놀이와 풍물을 배웁니다. 우리 전통음악을 외국 사람이 배우는데 문화적 자부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소리가 또박또박 해졌다.

〈솟대〉는 또 2년 전부터 중국 청도에 있는 청도대학교와 청도해양대학의 한국어과 학생들에게 가야금, 탈춤, 풍물 등을 가르치고 있다.

'성남' 과 전통음악의 전문성

일 년에 한번 정식무대에서 자신들이 만든 작품으로 공연을 하는데 판소리를 비롯해 춤과 장단을 위주로 하는 곳을 선보이기도 한다. 특이한 것은 황해도 곳을 작품으로 만든 것인데, 대표인 전순필 씨는 서해안 풍어제 이수자이면서 직접 굿을 하기도 한다.

"대학 다닐 때 풍물을 하면서 굿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최동호 만신이 문화운동 판에서 추모 굿을 할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김금화 만신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굿'이랑 학문으로 배우는 게 아니니까 일대일의 배움과 가르침이 없는 참 힘든 일이지요. 더 중요한 건 마음 자세겠지요. 그냥 무대에서 한번 보여주는 공연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하는 굿이니깐요" 전순필 씨의 전공인 황해도 굿은 심적 자세와 경건한 마음이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80년대 후반 대학 졸업과 함께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이 길을 선택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이 그렇기도 했지만 개인보다는 전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개인의 전문분야에 깊은 지식이 없었던 게 사실이었다고 한다.

평생 이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자신이 전문가가 되지 못한다면 '시작'의 의미가 없음을 생각했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의 음악과 춤을 사랑하는 그의 진지한 각오는 결국 오늘의 〈솟대〉가 여타의 문화집단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창립 공연할 때의 기억이 눈에 선합니다. 추운 겨울 날 변변한 연습공간도 없이 탄천변에서 손을 불어 가며 연습하고 연습 끝나면 공연비 마련하느라 여기

저기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하지만 공연이 끝나고 지역 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즘도 재정이거나 기타 문제로 어려움이 닥칠 때면 당시의 감동과 그 공연 후 무대에서 느꼈던 여운을 생각해 보면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 들죠.” 처음 그들의 공연을 본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들을 성남이란 지역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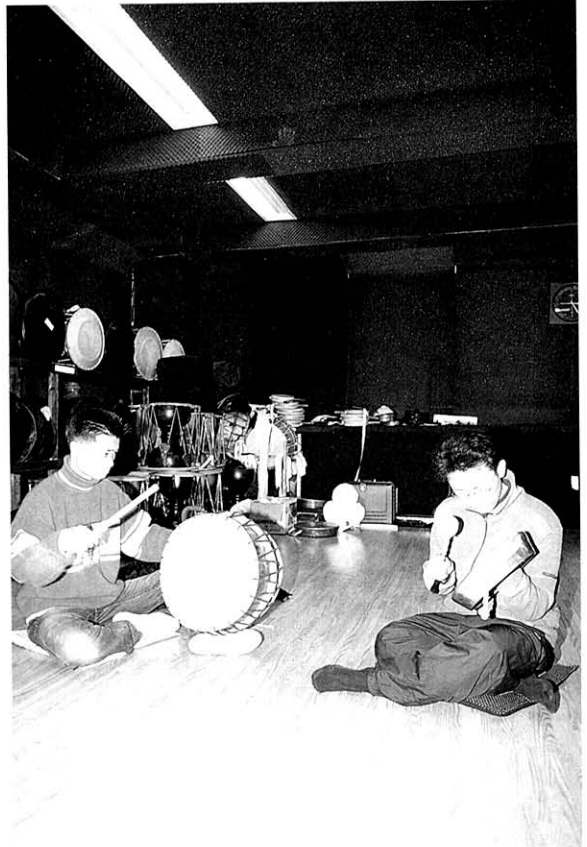
우리 문화의 솨대, 성남의 <솨대>

7년, 이 지역에서 그동안 그들은 전문가적인 우리 음악 집단임을 표방하고 일 년에 한 번 씩 정기공연을 열고, 지난 해 '효순이 미선이 1주기추모제' 공연, 옴니버스 형식의 기획공연과 대중적으로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나 <성남국악학교>, <가족과 함께 하는 우리음악 연주회> 등을 열었다. 이젠 성남의 웬만한 행사에는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힘든 일이 왜 없을까?

“내용 있고 꼭 필요한 공연보다 관의 특성상 전시적인 공연에 더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원 결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료들도 관성적이라 이젠 그들을 별로 설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 말에 설득 당하지도 않지만...” 정부나 지방자치의 지원을 받기 위해 수많은 형식과 제약 앞에서 별로 추진하고 싶지 않다는 자조 섞인 전순필 씨의 말은 우리의 문화정책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일일 것이다.

“성남이요? 저희가 제일 유명하죠. 바로 옆 광주처럼 남한산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지역문화가 없으니까요” 김진형 씨의 말처럼 성남에는 그들만의 지역문화가 거의 없다. 오히려 짧은 역사를 가진 이곳을 자신들이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말처럼 들린다.

<솨대> 단원들 대부분은 성남이 고향이 아니다. 어릴 적 부모의 손을 잡고 이사 온 이도 있고 대학을 이곳에서 다니다 아예 눌러 사는 이도 있다. 또는 다른 곳에 살면서 일을 하다 이곳으로 이사와 사는 이도 있



<솨대>의 단원들은 한 가지 악기만을 연주하지 않는다. 장구는 물론 징, 북, 해금과 아쟁도 다룰 뿐더러 춤사위도 한 자락씩을 한다.

다. 어찌됐건 '성남'이라는 지역과 인연을 맺은 것은 바로 그들이 하고 있는 전통 음악 때문이지만 그들이 지역에 갖는 애정은 단순히 '일'의 차원은 아닐 것이다. 심 없이 터를 닦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광주대 단지의 역사를 안고 있는 이곳에, 그들만의 문화가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본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 성남의 <솨대> 역할을 하고 있다. 아니, 어쩌면 성남이란 지역뿐 아니라 우리 전통 문화의 <솨대>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황석선 기자>